

‘향기로 즐기는 강진’, 향토요리 체험 및 경연대회 개최

후각으로 즐기는 오감축제, 향으로 기억되는 강진으로!

강진군이 오는 29일 강진읍 오감통시장 일대에서 ‘향(香)으로 즐기는 강진 - 지역 특산 향토 요리 체험 및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진읍 청년통·오감통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농특산물과 향을 결합한 감성형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으로 느끼는 강진의 맛, 향기로 남는 한 점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향토요리 체험부스 ▲요리경연대회 본선 ▲향기체험관 ▲홍보·판매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향토요리 체험부

스에서는 강진의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즉석 조리 및 시식 체험이 진행된다.

요리경연대회 본선은 ‘강진의 향을 담은 한 점사’를 주제로 15팀이 참가해 향 활용도, 지역성, 창의성, 맛, 비주얼 등을 심사받는다.

대회 참가 자격은 강진군민과 상권 내 사업자, 요리전공 학생, 일반인 등 전국민에게 열려 있으며, 예선(서류·레시피 심사)을 거쳐 본선 진출자 15명 내외를 선발하며, 시상 내역으로는 ▲대상(150만원)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각 50만원) ▲창의상(각 30만원) ▲참가상(각 10만원) 등으로 총 15팀이 수상한다.

향기체험관에서는 지역 차·약초향·디퓨저 등 후각 중심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홍보·판매존에서는 청년상인 푸드존과 강진 특산물 홍보·판매 코너가 마련된다. 부대행사로는 향토음식 시식회, 향기 굿즈 만들기 체험, 향 관련 퀴즈 이벤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시각·청각 중심의 기존 축제 콘텐츠에서 벗어나, 향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통해 강진만의 감성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지역 농특산물과 향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상권 분위기를



강진군 관계자 “향으로 느끼는 강진의 맛, 향기로 남는 한 점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극락조’ 개화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자연생태공원 호접란 특별전이 가을철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아열대전시관에 활짝 핀 극락조 한 송이가 가을 함평의 분위기를 더욱 깊게 물들이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자연생태공원 내 아열대전시관에서 극락조가 화려하게 개화해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천국의 새’로도 불리는 극락조는 강렬한 주황빛 꽃과 푸른 꽃대가 대비를 이루며,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듯한 독특한 형태로 이국적이고 생동감 있는 볼거리를 선사한다. 또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감성을 더한다.

이와 함께 함평자연생태공원은 환경부 지정 제14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극락조와 호접란 외에도 다양한 열대·아열대 식물과 생태 체험 요소를 갖춰 사계절 힐링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자연생태공원에서 꽃내음을 맡으며 사유하고, 느끼고 깊은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평만의 생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힐링 관광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극락조는 현재 자연생태공원에서 진행 중인 장자의 철학을 담은 ‘호접지몽(胡蝶之夢) 주제의 호접란 특별전’과 어우러져 ‘극락에 온 장자’가 된 듯한 도가(道家)적 분위기를 연출하며 독특한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호접란 특별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진도군은 지난 18일에 진도소방서와 함께 ‘2025 진도군청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자위소방대의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은 청사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진도군청 자위소방대와 진도소방서 대원 등 약 35명이 참여했다.

또한 소방차 2대를 투입해 실제 상황과

진도군, 진도소방서와 ‘진도군청 합동소방훈련’

초기 핵심 대응 능력 강화... 직원과 군민 모두의 안전 확보에 집중

유사한 실전형 훈련으로 운영됐으며, ▲화재 발견 및 비상경보 발령 ▲자위소방대의 초기진화 ▲옥내소화전 활용 진화 ▲직원과 민원인 대피 유도 ▲119 신고 및 상황 전파 ▲소방대 도착 후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현장 안정화 조치 및 사고 수습 절차 등을 훈련했다.

특히, 자위소방대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 절차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핵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 방법, 연기 회피 요령, 비상구 대피 방법 등 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해 훈련의 실효

성을 높였다.

진도군 관계자는 “청사의 안전은 직원뿐 아니라 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확인된 보완점을 반영해 자위소방대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 절차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카메라 뉴스



곡성군,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을 찾아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군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품(손가방) 배부 ▲예방 포스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위 내용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상당수가 불법 소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 주민 인식 개선을 핵심 목표로 구성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파쇄지원사업을 소개해 주민 호응을 이끌었다.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영농폐기물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된다”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구례농협, 구례군에 1,000만원 상당 꾸러미 기탁

전남 구례군은 최근 구례농협에서 생활꾸러미 총 100박스(천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꾸러미에는 삼계탕, 떡국, 쌀국수 등 5종의 식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식사를 통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식사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는 조합의 진심이 담겨 있다.

김치용 구례농협 조합장은 “이번 꾸러미 기탁이 작지만 진심 어린 나눔의 표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광군, 2025년 하반기 ‘영광바로알기 투어’ 실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11월 18일 군 및 유관기관 신규·전입 임직원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영광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투어는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인구시책의 일환으로, 주요 산업·관광 현장을 둘러보며 신규 직원의 지역 이해도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한빛원자력본부(에너지관, 6호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수풍력발전단지,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등을 방문하며 영광군의 에너지 산업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한눈에 살펴보았다. 투어에 참여한 한 신규 직원은 “에너지 시설과 역사유적, 해안 경관을 함께 둘러보며 영광군의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